

광주 도심 곳곳 ‘쓰레기 밭’…무단투기 해법 없나

남구 임암동 공터 최소 6년 전부터
재활용품·생활 폐기물 등 버려져
동구 용산동 모 카페 인근도 비슷
행정 당국 “사유지 정비 불가” 난색

“풀 사이사이가 다 쓰레기예요. 족히 5년은 넘은 것 같은데 누가 나서서 치우는 모습은 통 못 봤네요.”

26일 오전 광주 남구 효천1지구 공원 인근 한 공터는 성인 남성의 허리 높이보다 무성하게 자란 풀 사이로 온갖 종류의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었다.

부러진 밀걸레와 텅 빈 마대자루 같은 폐기물은 물론이고 재활용품으로 수거돼야 할 것들도 다양했다.

개중에는 비닐과 스티로폼 등 가벼운 것들도 다수였는데, 강한 바람에 도로 바깥으로 밀려나 오가는 차에 치이기가 일쑤였다.

햇볕에 색이 바랜 한 페트병의 라벨에는 유통기한이 2020년으로 적혀 있어 투기 행위가 수년 전부터 이뤄져 왔음을 짐작케 했다.



광주 일부 공터에 쓰레기가 무단투기 돼 미관 훼손은 물론, 악취로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으나 사유지여서 관할 당국이 정비를 하지 못하는 등 해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사진은 남구 임암동 한 공터로 무성하게 자란 풀 사이에 비닐, 스티로폼, 음식물 등 쓰레기들이 널브러져 있다.



/윤찬웅 수습기자

실제 네이버 로드뷰로 해당 구간의 과거 시점을 살펴본 결과 2019년 6월부터 ‘쓰레기 더미’가 보이기 시작했다.

이 같은 공터는 효천1지구 공원 인근에 띄엄띄엄 들어선 상가들의 사이마다 존재했고 일부에는 ‘쓰레기 불법투기 금지’라고 적힌 안내문이

설치돼 있기도 했다. 이를 두고 인근 주민들은 “아무런 효과도 없다”고 불멘소리를 냈다.

임암동 주민 김모(30대)씨는 “상가 이용객을 제외하면 인적이 드문데도 불구하고 쓰레기는 오갈 때마다 늘어나 있다”며 “우거진 풀숲에 박

혀있다시피 하다 보니 여름철에는 악취도 풍긴다”고 토로했다.

비슷한 시각 동구 용산동 한 카페 인근 공터의 상황도 비슷했다. 풀숲에 불이 옮겨붙을 위험이 커 보이는 담배꽂초부터 종이 박스 등의 쓰레기가 부지 곳곳에서 포착됐다.

한편에는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컨테이너와 간이 화장실도 들어서 있었는데, 주위에는 쓰레기가 특히 많이 모여 있었다.

용산동 주민 안모(30대)씨는 “아이와 함께 공원에 갈 때마다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는 걸 본 후로부터 미관상 좋지 않아 우회해 가고 있다”며 “행정 당국이 조금만 신경 쓰면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서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답답함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광주 지역 일선 자치구 관계자들은 “현행법상 사유지의 경우 행정 당국 차원의 정비가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남구 관계자는 “쓰레기 투기 관련 민원은 토지 소유주에 관계 없이 접수되지만, 사유지에 대한 조치는 정비 협조 요청 외 불가능하다”며 “소유주가 자신의 땅에 보관하고 있는 물품이 아닌 것으로 명확해 보이는 쓰레기여도 행정에서 치울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자치구 관계자도 “투기 근절을 위해 표지판이나 CCTV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직접 적발되는 경우를 제외하곤 과태료 부과도 어렵다”고 속사정을 털어놨다.

/윤찬웅 수습기자

캠보디아서 연락두절된 광주 20대 귀국

광산경찰, 범죄 연루 등 추가 조사

캠보디아로 출국한 뒤 가족과 연락이 끊겼던 20대가 귀국했다.

26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실종 신고가 접수된 광산구 거주 A(20대)씨가 지난 24일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A씨는 지난 22일 귀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캠보디아로 출국하게 된 경위와 체류 과정 등을 진술했으며, 생명·신

체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신변이 확인됨에 따라 광산경찰은 실종 사건을 종결하고, 사건을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로 이관했다.

경찰은 A씨가 현지에서 범죄에 연루됐거나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돈을 벌어 오겠다”며 태국으로 출국한 뒤 8월10일 가족과의 통화에서 “살려달라”는 말을 남긴 후 연락이 끊겼다.

이 때문에 경찰은 납치 등 범죄와의 연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실종 신고 직후 외교부를 통해 재외국민 체류 사실을 확인하고 온라인 접속 기록 등을 바탕으로 A씨의 행적을 추적했다. 이후 A씨가 직접 현지 한국대사관을 방문하면서 소재가 확인됐다.

A씨는 최근 캠보디아에서 국내 대학생이 범죄조직에 의해 살해된 사건을 접하고 귀국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옥근 기자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재심 내일 선고

발생 16년만…‘檢 수사권 남용’ 쟁점

16년 전 순천 한 마을에서 청산가리가 든 막걸리를 마셔 4명이 죽거나 다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재심의 결론이 오는 28일 나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2부(이영고 법관)는 28일 오후 2시30분 살인 및 존속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75)씨와 딸 B(41)

씨의 재심 선고공판을 연다.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은 2009년 7월6일 순천시 한 마을에서 독극물인 청산가리가 섞인 줄모르고 막걸리를 나눠 마신 주민 4명 중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사건이다.

범인으로 지목된 A씨 부녀는 숨진 피해자가 운데 1명의 남편이자 친딸이다.

부녀는 1심에서 신빙성이 떨어지는 진술 등

의 사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은 유죄로 판단해 부녀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의 중형을 내렸다.

대법원에서 확정된 유죄 판결을 다시 따져보는 재심의 개시 결정은 사건 발생 15년 만인 지난해 9월 확정됐다.

법원은 A씨가 한글이 서툰 초등학교 중퇴자인데, 장시간 이어진 검찰 신문의 조서를 매번 불과 몇 분 만에 열람하고 경계성 지능인 그의 딸 또한 생각 주입과 진술 유도 등 강압수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등 검찰의 수사권 남용 정황을 인정해 재심을 결정했다.

/안재영 기자

‘5·18 발포 거부’ 안병하 치안감 37주기 추모식

민주화운동교육관서 유족 등 80여명 참석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을 향한 발포 명령을 거부한 안병하 치안감의 37주기 추모식이 열렸다.

26일 안병하기념사업회에 따르면 전남 광주 서구 민주화운동교육관에서 추모식을 열었다.

추모식은 안병하기념사업회, 안병하인권학교, 김사복 추모 사업회, 전국경찰직장인협의회, 경찰청공무노동조합 공동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고인의 아내 전임순(94)씨와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안 치안감의 약력 소개를 시작으로 시작된 추모식은 인사말과 추모사,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시민 헌화 순으로 이어졌다.

정성훈 안병하기념사업회 공동대표는 “안 치안감은 부당한 권력의 명령 앞에서 시민을 지키겠다는 양심을 선택했다”며 “권력의 명령보다 양심을 택한 그의 용기는 지금 우리 사회가 기억해야 할 민주주의의 가치이다”고 밝혔다.

안 치안감은 1979년 전남도경 경찰장으로 부임해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발포 명령을 거부했다. 이후 같은 해 5월20일 합동수사본부에 연행돼 혹독한 고문을 당했고, 후유증에 시달리다 1988년 10월 60세의 나이로 생을 마쳤다.

고인은 2022년 광주민주화운동유공자로 선정돼 6월 국립서울현충원 경찰묘역에 안장됐으며 2008년 순직 인정으로 국가유공자예우를 받았다.

2015년에는 국가보훈처 ‘호국인물’로 선정됐고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치안감으로 일제급 특전을 추서했으며 경찰청은 그를 ‘경찰 영웅 1호’로 선정했다.

/주성학 기자

생후 4개월 아들 중태 빠트린 친모 구속

태어난 지 4개월 된 아들을 욕조에 두고 자리를 비워 중태에 빠트린 친모가 구속됐다.

26일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중상해) 혐의를 받는 A(30대·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최근 발부받았다.

영장 발부 사유는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 등이 인정된 데 따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2시30분께 여수시 소재 자택에서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욕조에 방치한 혐의 등으로 입건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육아 스트레스로 피해 아동인 둘째를 보살피는 데 있어 다소 소홀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다만, 학대에 대해선 부인하고 있어 경찰은 사실관계 파악에 주력하며 보완 수사를 이어가는 중이다.

/안재영 기자

민간자격증 관리기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파크골프 모든 것!

실내연습장 완비

지도자 자격증 취득

- 모집기간 : 수시모집(1:1교육)
- 교육접수 / 파크골프지도자 1,2급
 - ▶ 교재 배송 → 1차 이론 자가학습 → 1차 시험 → 2차 실기 1:1교육(매주 2회 이상) 실내파크골프연습장
- 접수방법
농협 351-1286-9685-63(국제파크골프연합회)
- 교육비 및 응시료
교재비 + 골프장 실습비 + 강사료
2급 합격시까지 28만원
- 접수 : H.P. 010-9163-7897 Tel. 062-369-0070

파크골프교육 (초보,중급,고급)

- 실내실습장(파크골프 스크린장) 1:1 책임지도(매주 2회 이상)
- 광주교육대학교 시민대학 강좌 개설 - 매주 토요일 09:00-11:30
- 매월1회 이상 파크골프 동호인 동행 전국구장투어



파크골프지도자 1·2급과정 교육 희망자 모집

교육과정			
2 급 지도자 과정	28만원 자격취득 총비용	실기실습장 이용권 33회 합격시까지	1:1지도 사전예약
1 급 지도자 과정	36만원 자격취득 총비용	실기실습장 이용권 33회 합격시까지	1:1지도 사전예약
초급완성반과정	12만원	실기실습장 이용권 15회	1:1지도/3회 사전예약
초급원포인트과정	6만원	실기실습장 이용권 6회	1:1지도/2회 사전예약

※ 파크골프지도자 1·2급 합격시까지 그 외 비용 일체 없음
※ 접수 즉시 이론교재 및 예상문제지 배송 실기실습/실내실습장 합격시까지 무료교육

교육시간 평일(토) 오전 09시~ 오후 19시까지(일)/휴무
접수문의 T. 062-369-0070 M. 010-9163-7897
접수비 입금계좌 국민은행 772601-01-794141

안내문의 : 010-9163-7897 / Tel. 062-369-007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89
(화정새마을금고 4층), 농성역 4번 출구 방향